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Effect Variables of Decision Making in Attitude for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생 이 수 정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문 숙 재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tudent : Soo Jeong Lee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 : Sook Jae Moon

목 차

I. 문제의 제기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providing the basic data for the measurement of the attitude for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by analysis of the attitude for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the degree of acceptance for living change. This study was composed of the attitude for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was based on time, quality, cost fa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attitude for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was influenced by sex, age, marriage, sex × marriage and the degree of acceptance for living change.
2. The variables which affected the attitude for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independently had influence on it in the following order : the degree of acceptance for living change, sex, house type.
3. The result of path analysis had confirmed that sex, age, income marriage, house type variable indirectly influenced the attitude for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through the degree of acceptance for living change. Sex, and marriage variable directly

influenced on the attitude for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Through the this study. The attitude for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was influenced by the degree of acceptance for living change. Change of household work is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and right attitude to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is necessary for satisfaction of various needs. for saving of time and money through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I. 문제의 제기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가정내의 생산과정이 가정밖의 영역 즉, 사회로 대폭 이양되어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집단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사노동 사회화는 사회문화적, 기술경제적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이나 범위가 변화하게 된다(문숙재, 채옥희 1986).

특히 오늘날 기술 경제적 여건의 향상은 사회에서 공급되는 사회화된 상품과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의 향상과 가격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회 문화적인 변화는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상승으로 가사노동 사회화의 요구를 높였으며 가정수입의 증대와 가족 구성원들의 시간제약은 가정내 노동이 사회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였다.

반면 전문화된 서비스,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상품은 가정의 지출부담을 가중시켰으며, 규격화 유형화된 상품으로 가정의 개성을 잃게 하고, 식품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가족 단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문숙재, 1988). 이와같이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새로이 제기됨으로써 극도의 사회화 경향은 오히려 감소되리라고 전망되기도 한다(Fisher, 1972). 즉, 가사노동 사회화로 인해 가사노동 시간이 절약되며, 생활이 편리해 질 수 있는 반면, 사회화된 상품, 서비스의 획득을 위해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며, 획득된 상품, 서비스의 품질 수준에 따라 민족, 불만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는 시간절약과 편리성,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 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복합적인 조합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사노동 사회화는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맞추어 변형되어진 가사노동의 한 형태이다. 때문에 생활의 변화와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용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따라서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대한 영향변수로 생활변화 수용정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독돌보기, 장보기 영역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기혼남녀, 미혼남녀의 태도를 시간, 비용, 품질의 측면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를 결정하는 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가사노동 사회화를 예측할 수 있고 미래의 가정관리에 대해 전망함으로써 미래의 안락한 가정생활과 가정복지, 나아가서는 사회복지를 가능케 하는 방향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사노동의 사회화 태도

Allport(1935)는 태도는 경험을 통해 조직된 것으로서,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대상들과 상황들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인 영향을 주는 정신적 및 신경적 준비 상태라고 했다.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으로서(김외숙, 1981 재인용) 특정 행동을 위한 태세 즉, 행동 경향의 의미와 동시에 특정 사실에 대한 감정적 경향이나 심리적 영향을 의미한다(윤명희, 1985).

그러므로 태도는 행동을 유발하거나 예언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취한 행동을 짐작할 수 있게 하며 그의

행동은 태도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다(윤길근, 1979).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대한 하나의 논의는 Robert와 Pamela(1989)가 지적하고 있다. 일찌기 가사노동을 분리할 수 있는 가사노동과 분리할 수 없는 가사노동으로 나누었는데(Beutter와 Owen, 1979) 만일 가사노동이 완벽하게 대체된다면 최소의 비용이 드는 생산품을 선택할 것이다. 즉, 시장재의 비용이 적다면 모두 시장재로 소비할 것이고 가정 생산재의 비용이 적다면 모두 가정생산재로 소비할 것이다. 반대로 절대분리가 불가능하다면 가정 생산재에 대한 시장재의 한계 대체율이 무한대이므로 사람들은 대체를 포기하고 어떠한 비용과 노력이 들더라도 가정생산재로 소비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생산재와 시장재 각각의 대부분의 경우는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Robert와 Pamela, 1989). 그러므로 가족구성원들은 가정생산재와 시장재의 조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된다. 결국 어떤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할때 가정생산재로 할것이나 시장재로 할것이나를 결정해야 되며 결정이전에 시장가격, 임금, 시간, 품질등과 같은 요인을 저변으로 한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가 형성되게 된다.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재화와 용역을 가정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태도 결정이 가정관리의 합리적 경영을 위해 필요하다.

문숙재(1986)는 가정관리 행동을 가정생산 활동으로 보았으며 가정생산은 가족원의 기술, 시간, 소득 등의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가족원의 효용을 창출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므로 가정생산은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가정관리 행동은 적용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생산활동을 사회로 이전시킬때 가정내의 시간, 소득 그리고 획득될 재화와 서비스의 효용이 고려되어지며, 이들 요소들 즉 가정의 시간, 소득, 획득된 재화와 서비스의 효용은 가사노동을 사회로 이전 시키는 것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질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

를 결정하는 요인은 시간요인, 품질요인, 비용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는 한 요인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요인들의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결정에 작용하는 각 요인들의 역동적인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있어서 품질과 비용의 관계

소비자 구매행동에 있어서 품질과 비용은 정적인 관계에 있으나, 가사노동 사회화에 있어서는 품질과 비용은 부적인 관계에 있다. 즉, 구매행동을 할때 좋은 품질의 재화, 용역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사회화시킬 때는 가사노동 사회화로 인해 구입된 시장재의 품질이 좋을수록 비용은 적게 지출된다. 이는 비용의 개념차이에서 발생되는데 소비자 구매행동의 비용은 상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이지만 가사노동 사회화의 비용은 가정생산에 필요한 비용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시장재 구입의 비용이기 때문이다. 가사노동 사회화에 있어서 시장 상품의 품질이 좋을수록 그 상대적인 비용은 감소되며 품질이 나쁠수록 그 상대적인 비용은 증가한다.

자본주의 생산양식하에서 생산력이 점차로 증가하고 기업의 고용력이 증대됨으로서 보다 많은 가족원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가정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며, 또 시장 생산에 의해 보다 값싸고 질좋은 재화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화로 인한 대량생산은 상품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상품가격의 하락으로 그 절대적인 비용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시장 상품 구입에 대한 비용부담을 감소시킨 또 하나의 변인은 임금의 향상이다. 임금의 향상은 가정의 예산 제약을 감소시키고 상품 구입에 대한 상대적인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게 되었으며 시장상품의 구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산업화로 인한 시장 상품가격의 하락과 임금의 향상 그리고 시장 상품의 질

적인 향상은 가사노동을 시장의 상품이나 용역으로 대체하는데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 기술자에 의한 가사노동 사회화는 질적인 향상과 함께 구입비용의 향상도 함께 가져왔다. 즉, 오늘날 가족 구성원들의 높은 요구수준은 좋은 디자인의 의상,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음식등과 같은 재화와 용역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런 재화와 용역은 가정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재화와 용역을 가정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문가, 기술자에 의해 생산된 재화, 용역을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면에서 적게들기 때문에 가정생산비용과 비교한 상대적인 비용은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좋은 품질의 재화와 용역으로 가사노동을 사회화 시킬때에는 그 비용은 적게 투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품질의 재화와 용역을 값싸게 가사노동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면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는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2)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의 관계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대한 논의에서 시간과 비용은 대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가사노동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려면 가사노동 사회화의 비용이 지출되며 가사노동 사회화의 비용을 감소 시키려면 가사노동의 시간이 소비된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의 시간도 감소시키면서 비용도 적게 드는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요인 모두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양자택일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개별가정의 두 요인에 대한 비중에 따라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시간을 중요시 하는 가정은 비용의 부담을 감수하고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제한 요소로써 작용한다. 오늘날의 가사노동에 있어서 시

간계약은 주부의 취업과 새로운 가사노동의 등장으로 인해 가중되었다. 조성은(1990)이 제시한 가사노동의 시간계약을 줄이기 위한 시간관리 전략을 살펴보면 가족원간의 분담, 가사노동의 기계화, 가사노동, 재화의 사회화,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 가사노동 수행표준의 조정, 가사노동 수행방식의 효율화, 여가 및 수면시간 분배의 조정으로 나누고 있다.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의해서 시간계약을 줄이는 방법에는 재화, 용역의 구입을 위해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가사노동 사회화에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연구는 시간절약을 위해 비용을 들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연구에 모아지고 있다. 취업주부는 비취업 주부보다 상대적으로 시간계약을 더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업주부는 그들의 가사노동 대신에 기구설비를 사용하며 식생활의 가사노동 사회화 수준이 높았다(Nichols와 Karen, 1983). 전일제 취업주부의 가족들은 비취업 주부의 가족들 보다 외식, 자녀양육, 충서 서비스에 유의한 수준으로 지출이 더 많았다(Bellant와 Foster, 1984). 즉, 시간계약이 많은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비용의 사용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며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반면 시간계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사람들은 비용의 사용을 회피할 것이며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도 부정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요인은 대체적인 관계에 있으며 개별가정이 두 요인에 대한 비중에 따라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가 결정될 것이다.

3)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있어서 시간과 품질의 관계

소비자 구매 행동에 있어서 시간소비와 높은 품질은 정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즉, 상품구매 이전에 시간계약이 적어서 정보탐색을 위한 시간 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품질의 상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사노동 사회화에서도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데 가사노동 사회화에서 시간의 개념은 가사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이므로 가사노동에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을수록 가사노동을 사회화 시킴으로서 얻게되는 재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 허용적일 수 있다. 즉, 시간제약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가사노동 사회화의 잇점을 더욱 중요시 여기므로 가사노동 사회화로 인해 획득된 재화와 서비스의 나쁜 품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간제약이 적은 사람들은 좋은 품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으므로 가정생산 또는 시장재구입을 선택할때 품질을 중요시 여기며 좋은 품질을 획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사노동 사회화로 인한 재화와 서비스의 질이 나쁘면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를 결정하는 하위요인을 시간요인, 품질요인, 비용요인으로 보고 시간, 비용, 품질에 대한 개인적 선호에 의해서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4)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와 생활변화 수용정도

환경의 변화는 현대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이며 그것은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가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기술적인 변화는 욕구와 자원에 변화를 초래하여 가족들로 하여금 변화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변화를 수용하는가 수용하지 않는가는 곧 가정생활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다(조영희, 1986).

그러므로 가정을 하나의 체계로 보며 외부환경과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가정을 체계로써 본 연구에서는 가정을 안전지향형(morphostatic)가정과 변화지향형(morphogentic)가정으로 구분하였는데, 안전지향형 가정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가정으로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고, 계획을 조정하고, 위협을 수용하는데 소극적인 가정이며, 변화지향형 가정은 더 쉽게 빈번하게 변화하여 더 창조적이고, 목적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가정이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계와 환경과의 역동적인 관계에 있어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체계의 수용정도가 어느정도인가에 따라서 개방적인 집단과 폐쇄적인 집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가족원들이 환경의 변화, 생활의 변화에 대한 수용에 있어서 개방적이나 폐쇄적이라는 문제는 미래의 가정관리 즉, 가사노동 사회화의 태도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원들이 생활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생활변화 수용정도를 개방적 태도와 폐쇄적 태도로 구분하고 개방적 태도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허용적이며 수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며, 폐쇄적 태도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이며 과거의 생활환경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한다.

2.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영향 미치는 변수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에 따라서 가사노동 사회화 수준에 차이를 보였으며(이혜옥, 1984. 이정주, 1985. 소연경, 1989) 여성은 남성보다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가 긍정적이었다(조윤경, 1988).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사회화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한경선, 1986. 정연주, 1987. 문숙재, 홍성희, 1988).

가족수가 가사노동 사회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정연주, 1987. 이기영, 1987). 이기영(1987)의 연구에서 가족형태는 가사노동상품대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수입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사회화 수준이 높았으며(정연주, 1986. 이기영, 1987. 정지영, 1990) 직업에 따라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차이를 보였다(조윤경, 1988).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미혼 남녀의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미혼남녀는 결혼전에 가사노동에 있어서의 책임을 갖고 있지 않으나 결혼후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면서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이며,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태도 또한 달

라질 것이다. 특히, 여성은 결혼전 가사노동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에서 가사노동의 책임자로서의 역할 변화로 인해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변수들을 참고로 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족수, 주거형태, 가족형태, 결혼여부, 직업, 수입을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영향 미치는 변수로 논의코져 한다.

2) 생활변화 수용정도

정연주(1987)의 연구에서 생활변화에 대한 태도는 유급 가사 보조자고용, 집안행사 음식의 사회화 정도, 식사후 처리의 사회화 정도에 유의한 변수로서, 융통적인 태도를 가질때 사회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문숙재, 홍성희(1988)의 연구에서 생활양식이 변화 추구형일 경우 가사노동 사회화 정도가 높았으며, 김혜연(1987)의 연구에서 생활 양식이 유행, 편리추구형과 현실충동형일 경우 가정관리 행동은 시장 의존적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생활변화에 대한 수용정도가 개방적이나 폐쇄적 이냐에 따라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리라고 볼 수 있기에 생활변화 수용정도를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영향 미치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 논의코져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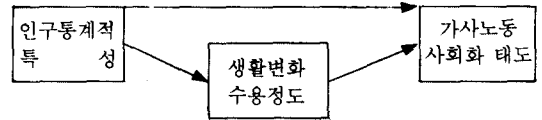
연구문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생활변화 수용정도에 따라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생활변화 수용정도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생활변화 수용

정도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로 모형에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가?



〈그림 1〉 연구문제의 모형

2. 조사도구의 구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족수, 가족형태, 주거형태, 직업, 결혼여부, 수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생활변화수용정도

생활변화 수용정도의 척도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수용정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성되어 모두 15문항으로 질문하였다.

각 문항들은 조영희(1986), 김혜연(1986), 정연주(1986)의 연구를 참고로 해서 본 연구자가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생활변화 수용정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706$ 으로 나타났다.

15개 문항을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합산한 점수를 생활변화 수용정도로 하고 3집단으로 분류했고 점수가 낮은 하집단을 개방적 태도, 중집단을 중간적 태도, 상집단을 폐쇄적 태도로 파악하였다.

3) 가사노동 사회화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돌보기, 장보기의 5영역에 걸쳐 질문하였으며 각 항목에는 시간요인, 품질요인, 비용요인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질문내용 구성은 문숙재, 채옥희(1986), 임정빈(1981), 정영금(1984)의 가사노동 영역분류를 기초로 하여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가지고 조윤경

(1988), 정연주(1987)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매우 좋다'가 1점, '매우 나쁘다'가 5점으로 리커트형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합산 점수가 낮을수록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가 긍정적이다.

3.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태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미혼남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후 본 조사는 1991년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수된 452개의 설문지 중에서 연구분석에 적절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한 383개의 설문지가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 383부는 SAS program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등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분산분석, 중회귀 분석,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기초자료의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46.2%, 여자가 53.8%이고 연령분포는 20대가 28.5%, 30대가 29.2%, 40대가 23.8%, 50대 이상이 18.5%으로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것은 미혼남녀에 대한 표집때문에 나타난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13.8%, 고졸이 33.4% 대졸이상이 52.7%이며, 수입은 5만원이하가 26.9%, 51-100만원 이하가 44.6%, 101-200만원 이하가 20.6%, 200만원 이상이 7.8%로

51-100만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50.4%, 아파트 29.2%, 연립 및 기타가 20.4%으로 단독 주택이 제일 많았다.

결혼여부에 대한 비율에 있어서는 기혼 68.9%, 미혼이 31.1%로 나타났다. 직업분포는 전문·관리직 16.8%, 사무·기술직 32.1%, 자영업자 12.5%, 피고용 기능공·단순노무자 11.4%, 무직·주부 27.3%의 비율로 사무·기술직의 비율이 제일 높았다.

2) 생활변화 수용정도 경향

조사대상자들이 변화하는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성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폐쇄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한 생활변화 수용정도는 모두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저점은 15점, 최고점은 75점의 범위였으나 실제로는 15점-62점의 분포를 보여 이를 15점-37점은 개방적, 38점-45점은 중간적, 46점-62점은 폐쇄적 정도로 분류하였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

평균점이 41.462로써 중간점 45점보다 조금 낮으나 중간적 집단에 속하므로 개방적인 경향을 보이는 중간적 생활변화 수용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생활변화에 대하여 중간적 태도를 보이는 정연주(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3)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

평점이 1점~2.5점일 경우에는 긍정적인 태도, 2.5점~3.5점일 경우에는 중간적 태도, 3.5점~5점일 경우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의 평점은 2.870로써 중간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2. 연구문제의 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

연구문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나타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태도

(n=383)

변 수	집 단	빈 도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	
			평균	F 값
성 별	남성	177	2.918	2.629** (T 값)
	여성	206	2.828	
연 령	20대	109	2.770	5.15**
	30대	112	2.902	
	40대	091	2.940	
	50대 이상	071	2.884	
가족형태	핵가족	340	2.871	0.277 (T 값)
	확대가족	042	2.856	
가족 수	2명 이하	058	2.852	0.15
	3명	043	2.888	
	4명	120	2.881	
	5명	107	2.870	
	6명 이상	055	2.851	
교육수준	중졸 이하	053	2.957	2.11
	고졸	128	2.851	
	대졸 이상	202	2.859	
수 입	50만원	103	2.861	0.51
	51-100만원	171	2.888	
	101-200만원	079	2.835	
	200만원이상	030	2.888	
주거형태	단독	193	2.849	1.03
	아파트	112	2.906	
	연립 및 기타	078	2.890	
결혼여부	기혼	264	2.907	2.990** (T 값)
	미혼	119	2.788	
직 업	전문, 관리직	059	2.826	0.74
	기술, 사무직	113	2.830	
	자영업자	044	2.883	
	피고용기능공	040	2.853	
	단순노무자 무직, 주부	096	2.904	
결 혼 성 별	기혼 여성	146	2.859	6.44**
	기혼 남성	116	2.967	
	미혼 여성	058	2.749	
	미혼 남성	061	2.825	

*P<0.05, **P<0.01, ***P<0.001

나 있다.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그리고 결혼×성별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부정적인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가사노동을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여성은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

(n=383)

변 인	집 단	식생활 영역		의생활 영역		주생활 영역		가족돌보기영역		정보기 영역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성 별	남성	3.166	2.510*	2.615	3.175**	2.684	1.945	3.049	1.094	2.911	1.020
	여성	3.059		2.487		2.592		2.991		2.862	
연 령	20대	3.006	3.40*	2.484	1.93	2.529	4.72**	2.944	2.05	2.705	8.93
	30대	3.120		2.579		2.713		3.009		2.940	
	40대	3.183		2.603		2.721		3.027		2.995	
	50대이상	3.150		2.516		2.562		3.122		2.995	
교육수준	중졸이하	3.178	1.20	2.614	2.61	2.759	2.60	3.014	2.64	3.085	5.66*
	고졸	3.072		2.586		2.642		2.941		2.882	
	대졸이상	3.113		2.503		2.597		3.064		2.836	
주거형태	단독주택	3.034	6.82**	2.572	0.94	2.655	0.74	2.979	2.02	2.876	0.96
	아파트	3.121		2.508		2.599		3.090		2.932	
	연립,기타	3.143		2.536		2.649		3.000		2.838	
결혼여부	기혼	3.140	2.208*	2.582	2.625**	2.671	2.302*	3.031	0.846	2.962	4.316***
	미혼	3.038		2.467		2.553		2.983		2.725	
직 업	전문,관리직	3.240	2.22	2.480	0.42	2.448	1.03	3.021	0.55	2.618	4.30**
	사무,기술직	3.036		3.512		2.654		2.983		2.828	
	자영업자	3.111		2.505		2.649		3.006		3.034	
	피고용기능공	3.046		2.584		2.637		2.919		2.951	
	단순노무자	3.172		2.551		2.645		3.045		2.948	
	무직, 주부										
성 별 결 혼	기혼여성	3.078	4.34**	2.519	6.21***	2.636	3.43*	3.003	0.74	2.929	8.25
	기혼남성	3.219		2.662		2.715		3.067		3.007	
	미혼여성	3.009		2.407		2.478		2.961		2.700	
	미혼남성	3.065		2.525		2.625		3.003		2.750	

*P<0.05, **P<0.01, ***P<0.001

가사노동을 경감시키고 편리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남성은 가사노동 사회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고 가사노동은 주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결과는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의 모든 영역에서 남편과 부인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조윤경(1988)의 연구와 일치한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나 50대 이상이 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의 편리함과 시간요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가사노동 수행능력이

부족하며 그리고 편의식품 이용, 배달서비스와 같은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매일 새롭게 시장에 등장하는 사회화된 상품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 보다는 매일 주부가 직접 가사노동을 수행함으로써 만들어진 최종 소비재에 모든 가족원들이 익숙해 있으며 더 선호하기 때문에 가사노동 사회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50대 이후가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주부 또는 부인이 가사 노동을 수행하기에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 사회화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결혼여부에 따라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차이를 보이는데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결혼으로 인해 가정을 꾸미게되면서 가정의 단란함, 화목, 건강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가정내의 노동도 가족원들이 수행함으로써 만족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성별에서는 미혼여성, 미혼남성, 기혼여성, 기혼남성의 순서로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가족형태, 가족수, 교육수준, 수입, 주거형태, 직업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의 차이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식생활 영역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는 성별, 연령, 주거형태, 결혼여부, 성별×결혼 변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생활 영역은 오늘날 가사노동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화 시키기에 까다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화의 수준이 떨어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번거로움을 잘 알고 있는 여성은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식생활 영역은 직접 수행하는 사람의 기술의 요구하는 영역이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노동 수행 능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주거형태가 아파트인 경우보다 단독 주택인 경우 긍정적인 식생활 영역의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식생활의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식생활의 가사노동 사회화 수준의 아파트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정연주, 1986 ; 이기영, 1987 ; 정지영, 1990)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화 수준과 사회화 태도가 동일한 방향이 아님을 보여준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의 태도가 미혼자보다 부정적이었다.

성별×결혼변수에 따라서는 기혼남성, 기혼여성,

미혼남성, 미혼여성의 순서로 부정적인 식생활 영역에서의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식생활 영역의 가사노동 사회화는 그 품질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기혼 여성은 미혼여성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혼남성은 미혼남성보다 저장식품의 구입, 파출부의 식사준비등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주부가 직접 식탁을 마련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를 보였다.

의생활 영역의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 교육수준, 결혼여부, 성별×결혼의 변수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들은 의생활에 있어서도 시간절약, 편리함의 장점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혼으로 인해서 성별분업에 대해 수용적으로 되면서 모든 가사노동은 주부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의생활에 있어서의 가사노동 사회화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성별×결혼변수는 미혼여성, 기혼여성, 미혼남성, 기혼남성의 순서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성별, 결혼 변수의 결과와 동일하다.

주생활 영역의 가사노동 사회화에는 연령, 결혼여부, 성별×결혼변수가 유의한 변수였다. 주생활은 많은 부분이 전문가, 기술자에게 의뢰하여 수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족돌보기 영역의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없었다.

장보기 영역의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유의한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직업, 성별×결혼변수이다. 장보기의 가사노동 사회화는 주로 배달 서비스에 대한 이용인데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재래시장 보다는 배달서비스가 가능한 슈퍼마켓, 백화점을 이용하는 기회가 많으며 통신 판매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배달 서비스 방법에 대해서도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부정적인 장보기 영역의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를 보였으며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관리직, 사무·기술직, 무직·주부, 피고용기능공·단순노무자, 자영업자의 순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문·관리직, 사무·기술직의 집단들이 배달서비스, 통신 판매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학력이나 임금이 높기 때문에 서비스의 이용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자주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각 영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 영역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영향 미치는 변수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결정 요인별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시간, 품질, 비용 요인별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시간요인별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유의했던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수입, 성별×결혼이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가사노동 사회화로 인한 시간절약, 편리함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가사노동을 직접수행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을 수행하면서 시간 절약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가사노동 사회화는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 사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결정 요인별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

(n=383)

변 인	집 단	시간요인		품질요인		비용요인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성 별	남성	2.270	2.094*	2.954	1.903	3.365	0.791
	여성	2.172		2.879		3.326	
연 령	20대	2.135	2.74*	2.796	5.36**	3.286	0.97*
	30대	2.198		2.958		3.358	
	40대	2.313		2.990		3.349	
	50대이상	2.249		2.926		3.405	
교육수준	중졸이하	2.409	6.99*	2.991	1.39	3.288	1.26
	고졸	2.284		2.887		3.310	
	대졸이상	2.153		2.910		3.380	
수 입	50만원이하	2.340	3.90**	2.872	0.77	3.266	1.68
	51-100만원	2.194		2.932		3.383	
	101-200만원	2.151		2.906		3.329	
	200만원이상	2.100		2.970		3.432	
주거형태	단독주택	2.212	0.02	2.899	0.46	3.288	3.20*
	아파트	2.222		2.943		3.430	
	연립, 기타	2.223		2.907		3.358	
결혼여부	기혼	2.247	1.905	2.965	3.645**	3.353	0.520
	미혼	2.151		2.799		3.323	
성 별 결 혼	기혼여성	2.203	2.89*	2.921	7.10***	3.337	0.34*
	기혼남성	2.303		3.022		3.374	
	미혼여성	2.093		2.773		3.299	
	미혼남성	2.206		2.825		3.347	

*P<0.05, **P<0.01, ***P<0.001

회화로 인한 시간절약, 편리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지만 50대가 되면 다시 긍정적으로 되는데 이는 20대, 50대에는 시간가치를 더욱 중요시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20대에는 가사노동 이외의 활동에 관심이 더 많으며 50대에는 가정적, 사회적으로 그 역할이 막중해 지므로 가사노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가치를 중요시하며 가사노동 사회화로 인해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하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수입에 따라서도 유의한 시간요인별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를 나타내었는데 수입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간당 수입이 많을수록 시간을 가사노동보다는 수입의 획득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므로 시간절약 측면에서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성별×결혼변수에 따라서는 미혼여성, 기혼여성, 미혼남성, 기혼남성의 순서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품질요인별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영향미친 변수는 연령, 결혼여부 성별×결혼 변수였다. 연령에 따라서 20대와 50대는 가사노동 사회화로 인해 획득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 긍정적이나 30, 40대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30, 40대가 품질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회화된 시장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며, 또한 더 좋은 품질의 재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가사노동 사회화의 품질요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미혼여성, 미혼남성, 기혼여성, 기혼남성의 순서로 품질 요인별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비용요인별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는 연령, 주거형태가 유의했다. 대체적으로 비용 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노동 사회화로 인한 비용 부담에 부정적인 태도이다.

그리고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단독주택 거주자보다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을 단독이용

할 기회가 더 많으며 이로 인해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영역의 구입이 용이하다. 때문에 빈번한 이용으로 그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며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2) 생활변화 수용정도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
연구문제 2 : 생활변화 수용정도에 따라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생활변화 수용정도에 따라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생활변화 수용정도를 폐쇄적, 중간적, 개방적 태도로 나누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같이 생활변화 수용정도에 따라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개방적인 생활변화 수용정도를 가진 집단이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4〉 생활변화 수용정도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태도 (n=383)

변 수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	
		평균	F값
생활 변화수용 정 도	개방적	2.753	13.45***
	중간적	2.884	
	폐쇄적	2.976	

*P<0.05, **P<0.01, ***P<0.001

생활변화 수용정도가 개방적 일수록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며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수용적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변화인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생활변화 수용정도의 독립적인 영향력

연구문제 3 :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생활변화 수용정도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계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생활변화 수용정도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대한 중회귀 분석
(n=383)

변 수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	
	B	
성 별	-0.095	-0.138
연 령	-0.003	-0.080
가 족 수	-0.002	-0.011
가족형태	-0.007	-0.006
교 육	-0.002	-0.014
수 입	-0.000	-0.039
주거형태	-0.083	-0.125
결혼여부	-0.019	-0.027
직 업	-0.012	-0.050
생활변화 수용정도	-0.014	-0.291
Constant	2.352	
R2	0.1506	

*P<0.05 **P<0.01 ***P<0.01

〈표 6〉에 나타나 있듯이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영향미친 변수는 생활변화 수용정도(=0.291), 성별(=-0.138), 주거형태(=-0.125)의 순서이다.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생활변화 수용 정도였는데 생활변화 수용정도가 개방적 일수록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즉,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사람은 융통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가정관리의 새로운 변화인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은 성별이 영향을 미쳤는데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 사이에는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서 뚜렷한 태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가사노동으로 인한 부담감이 더 크며 가사노동 사회화를 통해서 여가시간을 늘리고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 사회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다음은 주거형태인데 아파트 거주자의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가사노동 사회화 경험이 많으리라고 기대되는 아파트 거주자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경험의 결과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이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를 설명해 주는 정도는 15.06%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생활변화 수용정도였는데 생활 변화에 대해서 수용적, 개방적일수록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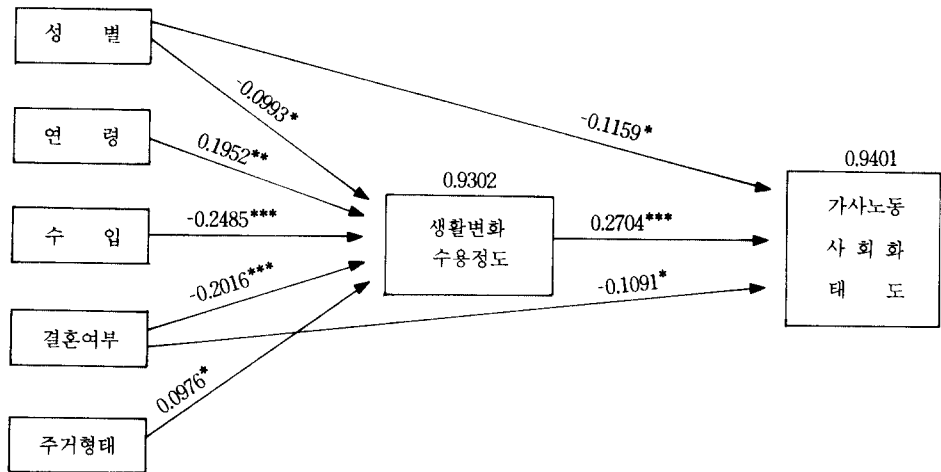
5.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생활변화 수용정도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의 인과관계 모형

연구문제 5.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생활변화 수용정도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로모형에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생활변화 수용정도가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로모형을 구성하고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2차에 걸쳐서 실시되었는데, 모든 관련 변수를 포함시켜서 경로분석을 1차적으로 실시한 후 P<0.05 수준이상의 유의한 의미를 가진 변수만을 선택하여 2차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내생변수인 생활변화 수용정도(P=0.27704)와 외생변수인 성별(P=-0.1159), 결혼여부(P=-0.1091)이었다. 생활변화 수용정도는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와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즉, 생활변화 수용정도가 개방적일수록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긍정적인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를 보였으며 미혼자보다 미혼자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생활변화 수용정도를 통해서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P=-0.0269), 연령(P=0.0528), 수입(P=0.0672), 결혼여부(P=0.0545), 주거형태(P=0.0264)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생활의 변화추구에 긍정적, 수용적이기 때문에 생활변화 수용정도가 개방적이며 가사노동 사회화 또한 가사노동의 변화이므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적응력이 높으며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생활변화 수용정도가 가



〈그림 2〉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대한 경로 모형

방적이고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도 긍정적이다. 또한 수입이 많을수록 생활변화 수용정도가 개방적이며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가 긍정적이다. 수입이 많으면 생활을 변화시킬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사노동 사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생활 변화 수용이 개방적이며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가 긍정적이다.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변화하는 생활에 대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유로우며 생활의 편리함·간편함을 가능케하는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생활변화에 대해 개방적이며 가사노동 사회화에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살펴볼때,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를 설명하는 변수들의 총인과적 효과로써 변수들간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살펴보면 생활변화 수용정도($P=0.2704$)가 가장크며 그 다음은 성별($P=-0.1428$), 수입($P=0.0672$), 결혼여부($P=-0.546$), 연령($P=0.0528$), 주거형태($P=0.02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직접적인 영향보다 생활변화 수용정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 구성원들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들을 파악하고,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를 형성하는 하위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변화하는 가족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합리적인 가정경영을 위한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전망과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그리고 결혼×성별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가 긍정적이며 미혼여성이 가장 긍정적, 기혼남성이 가장 부정적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를 보였다.

둘째, 생활변화 수용정도에 따라서는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생활변화 수용정도가 개방적일수록 긍정적인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를 보였다.

셋째,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생활변화 수용정도, 성별, 주거형태의 순서로 유의한 변수였다. 제 변수들의 설명수준은 15.06%였다.

넷째, 제변수들과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의 인과관

〈표 7〉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미치는 인과적·비인과적 효과 및 총효과

변 수	인 과 적 효 과			비인과적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효과		
성 별	-0.1159	-0.0269	-0.1428	-0.0093	-0.1335
연 령	-0.0000	-0.0528	-0.0528	-0.0833	-0.1361
수 입	-0.0000	-0.0672	-0.0672	-0.0703	-0.0031
결혼여부	-0.1091	-0.0546	-0.0546	-0.1098	-0.1644
주거형태	-0.0000	-0.0264	-0.0264	-0.0894	-0.0630
생활변화	-0.2704	-0.2704	-0.2704	-0.0363	-0.3067
수용정도					

〈표 8〉 제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성 별	1.000										
2. 연 령	-0.089	1.000									
3. 가 족 수	0.111	0.192	1.000								
4. 가족형태	0.008	0.041	0.373	1.000							
5. 학 력	-0.098	-0.151	-0.151	-0.046	1.000						
6. 수 입	-0.000	0.438	0.030	-0.002	0.255	1.000					
7. 주거형태	0.106	-0.090	0.086	0.014	-0.117	-0.135	1.000				
8. 결혼여부	-0.068	-0.657	0.189	-0.074	0.300	-0.379	-0.044	1.000			
9. 직 업	0.408	-0.344	-0.112	-0.006	0.392	-0.038	-0.109	0.506	1.000		
10. 생활변화수용태도	-0.093	0.219	0.074	-0.001	-0.222	-0.100	0.112	-0.234	-0.198	1.000	
11. 가사노동사회화태도	-0.134	0.136	0.005	-0.014	-0.099	-0.003	-0.063	-0.164	-0.087	0.307	1.000
평 균	0.538	37.859	4.162	0.110	13.734	97.901	0.504	0.311	1.790	41.462	225.261
표준편차	0.499	10.317	1.506	0.313	3.054	60.010	0.501	0.463	1.404	7.083	30.495

계를 살펴본 결과 성별, 결혼여부와 생활변화 수용 정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 연령, 수입, 결혼여부, 주거형태가 생활변화 수용정도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가장 유의한 영향력을 지닌 변수는 생활변화 수용정도이다. 생활변화 수용정도가 개방적인 사람은 새로운 상품에 대한 구매욕구가 높고, 금전의 사용에 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관리 형태의 변형인 가

사노동 사회화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생활변화 수용정도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 사이의 매개변수로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즉, 생활변화 수용정도가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생활변화 수용정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기혼여성, 기혼남성, 미혼여성, 미혼남성의 4 집단으로 구분해서 볼때 각 집단마다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차이를 보였으며 하위 영역별, 결정요인 별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

는 성별과 결혼여부가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은 결혼으로 책임을 갖게 되는 노동이며, 여성이 그 부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여성은 남성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기혼 여성은 미혼여성보다 부정적인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가사노동 사회화를 경험하면서 느낀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가사노동 사회화를 경험하면서 느낀 가사노동 사회화의 단점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해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

셋째,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영역은 식생활, 가족돌보기 영역이었으며 의생활, 주생활 영역은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즉, 식생활과 가족돌보기와 같은 영역은 정서적인 교류와 가족의 건강이 관여되어 있음으로 사회로의 이전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이다. 그러므로 식생활의 간편함과 함께 영양가 높고, 위생적이며, 균형있는 식생활을 가능케 하는 사회화된 상품의 등장이 요구된다. 또한 자녀양육,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육시설의 확충과 교사의 자질향상을 꾀해야 한다. 또한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서 가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정의 시간, 금전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지닌 제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생활변화 수용정도만을 사회심리학적 변수로 선정하였으나 그 설명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학적 변수에 대한 노력을 모색하여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영향변수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 결정에 기반이 되는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간요인, 품질요인, 비용요인을 논의하였으나 개개인의 성격, 기회비용, 시간가치에 대한 인식도, 심도깊은 품질개념등을 도입하여 연구한

다면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는 요인을 파악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강정옥,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실태조사—식생활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2) 김명희, '가사노동에 가치에 대한 주부의 의식조사 연구', 한양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3) 김연화, '도시 주부의 가치관과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4) 김영란, '가사노동에 관한 계급별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5) 김애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서울 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3권 4호(한국여성개발원), pp.25~48, 1985.
- 6) 김외숙(1981), '도시주부와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I'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4호, pp.55~63, 1981.
- 7) 김종규, 김석희(1976), '자원난 시대에 있어서 주부의 ZD운동' 「여성문제 연구」 제5, 6집(한국여성문제 연구소), 1976.
- 8) 김혜경, '가사노동에 이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9) 김혜연,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가정관리 행동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10) 문숙재,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에 대한 의식과 실태조사' 「논총」 제37집(이대 한국문화연구원), pp.351~369, 1980.
- 11) ———, '가정관리 행동을 위한 인류학적 접근' 「대한 가정 학회지」 19-4, pp.65-71, 1981.
- 12) ———, '문화가 가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 가정 학회지」 18-3, pp.65-71, 1981.
- 13) ———, 채옥희 「가사노동」(신광출판사), 1986.

- 14) ———, 홍성희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대한 가정 학회지』 26-3, pp.153-169, 1988.
- 15) 박애란, ‘주부의 가사노동 각 분야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16) 박인경,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17) 소연경, ‘주부의 요구임금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 18) 윤길근, ‘태도와 행동의 관계’ —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19) 윤해숙, ‘태도변화 이론에 입각한 투표 행위에 대한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8.
- 20) 이기영,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본 가사노동의 의미와 그 전개」『고려대학교 사대논문』 6, pp.207-223, 1981.
- 21) ———, ‘가사노동의 경제적 의의와 평가에 관한 소고」『고려대학교 사대논문』 7, pp.125-145, 1982.
- 22) ———,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 23) 이정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24) 이혜옥, ‘개인의 가치관과 식생활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25) 정연주, ‘도시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26) 정영금,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사회경제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27) ———, ‘가정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28) 조윤경, ‘가사노동 사회화 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29) 한경선, ‘한국가정의 일상식의 구조와 그 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30) Ackerman, Norleen M. ‘Money Resources, Time demands, and situational factors as predictors of shopping tim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 13, No.1, pp.1-9, 1989.
- 31) Bellante, D. & A.C. Foster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 on Servi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1, pp.700-707, 1974.
- 32) Beutler, Ivan F. & Alma J. Owen “A Home Production Activity Mod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9, No.1, pp.16-26, 1979.
- 33) Deacon, R.E. % F.M.Firebaugh Home Management Context and Concept(Houghton Mifflin Co.), 1975.
- 34) Doris Beard & Francille M. Firebaugh ‘Morphostatic and Morphogen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 :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6, No.3, pp.192-205, 1978.
- 35) Elizabeth M.Dolan & Elizabeth Scannell “Husbands and wives household work: moving towards egalitarianism?”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1, No.4, pp.387-399, 1987.
- 36) McDcracken, Vicki A & Brandt, Jon A “Time Value and It's impact on Household Food Expenditures Away From Hom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8, No.4, pp.267-285, 1990.
- 37) Menasco, M.B. & Curry, D.J. ‘Utility and Choice : An Empirical Study of Wife / Husband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6, No.1, pp.87-97, 1989.
- 38) Nichols, S.Y. & Karen D.Fox “Buying Time and Saying Tiem :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0, pp.197-208, 1983.
- 39) Ormsby, Tricia ‘Family choices in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13, No.4, pp.359-368,

- 1989.
- 40) Rober O. Weagley & Pamela S. Norum 'Household Demand for Market Purchased, Home Producible Commodit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8, No.1, pp.618, 1989.
- 41) Sanik, M.M. "Division of Household Work : A Decade Comparison(1967-1977)",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0, No.2, pp.175-180, 1981.
- 42) Sanzoni, J. "Sex Roles, Economic Factors, and Marital Solidarity in Black and White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7, pp. 130-145, 1982.
- 43) Sonzoni & G.L. Fox "Sex Role, Family of Marriage and The Seventies and Beyon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2, No.4, pp. 20-33, 1980.
- 44) Stafford, Kathryn, "The Effect of Wife's Employment Time on Her Household Work Time",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Vol.11, No.3, pp.257-266, 1983.
- 45) Steidle, R.E. & E.C. Bratton Work in the Home (John Wiley) and Sons, Inc), 1968.
- 46) Strober, M.H. & Charles B. Weinberg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6, pp.338-348, 1980.